

부·울·경, 혁신금융 메카로... BNK금융, 5000억 지원

(5년 간)

하나아이티엠 등 5개社 업무협약
혁신기업 육성 위해 투자 활성화

유스페이스BIFC에 핀테크랩 배치
펀드조성 등 핀테크 유니콘 산실로



김지완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안쪽 두번째)이 부울경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세번째) 등과 포즈를 취했다. /BNK금융

BNK금융그룹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혁신기업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실질적 금융지원에 나선다.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BNK금융그룹은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울경 혁신기업 투자활성화 업무협약을 가졌다. 혁신기업은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중 4차 산업관련 기업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기업 ▲부울경지역 주력산업(항공산업 등) 관련 혁신기술 보유 기업 등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울경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자동차분야가 부진해 지역경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주력 산업 개선만큼 혁신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해 창업 분위기를 조성, 부산의 성장을 주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부울경 경제침체가 3년간 지속되면서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필요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열악한 창업생태계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이번 협약이 마중물 역할을 해 부울경 경제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하고, 혁신기업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한다. 또 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 300~500억 원 가량의 혁신기업 투자펀드도 조성해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성장금융 간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혁신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이날 BNK투자증권은 혁신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5개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은 하나아이티엠 세종이앤씨 자이언트케미칼 리센스메디컬 디에이콘트롤스 등이다. BNK투자증권은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마련과 투자조성 펀드를 운용한다.

아울러 BNK금융그룹은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혁신금융관련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부산시와 BNK금융그룹이 협업해 만든 유스페이스 BIFC(Unicorn-Space BIFC)에 BNK핀테크랩을 배치하고 4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전문적인 핀테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전문 펀드운용사와 공동으로 부울경 스타트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끌어 나간다.

스타트업 지원센터 씬인큐베이터(SUM Incubator)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이날 문을 연 ‘유스페이스 BIFC’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와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한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 지원 공간이다. 입주 핀테크 기업에 사무공간 인건비 지원부터 투자지원, 컨설팅 위워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기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투자유치 연계 등이 유스페이스 BIFC를 핀테크 유니콘의 산실로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은 또 금융중심지 부산의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아 부산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금융위도 일관성을 가지고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se)제도 도입, 핀테크 혁신펀드(3000억원 규모) 조성 등 핀테크 혁신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직장인 위한 24시간 365일 대출상품 출시

NH농협은행 ‘올원 직장인대출’

NH농협은행은 직장인을 위한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 상품 ‘올원 직장인대출’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원 직장인대출’은 본인명의 휴대 폰과 공인인증서, 농협은행 입출식계좌만 있으면 은행 방문이나 소득증빙서류 제출 등이 필요없이 NH스마트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 한도 및 금리조회와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다. 추후 올원뱅크 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정보



를 수집하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재직여부와 추정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한도와 금리를 산출한다.

대상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법인 기업체 재직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안상미 기자

페이북으로 해외주식 간편투자 하세요

비씨카드, 복잡한 절차 개선
소수점 단위까지 주문 가능

비씨카드가 간편결제 앱(이하 ‘페이북’)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에서 제공 중인 해외주식 간편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해외주식 투자서비스와는 달리 복잡한 이용절차를 개선해 매매 편의성이 높아졌다. 소수점 단위(0.01주, 단최

소 주문 \$5 이상) 주문도 가능해진 것이 페이북 투자 서비스의 장점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페이북을 통해 페이북 전용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투자 금액을 이체한 후 매매를 원하는 해외주식을 선택하고 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전 및 매매가 완료된다.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21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 hong93@

롯데카드

MLB 협업 한정판 카드

롯데카드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LB)과 협업해 한정판 디자인 카드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KIT X MLB 스페셜 에디션’ 상

품은 MLB 구단의 심볼과 유니폼의 요소를 활용해 디자인한 신용카드 4종, 체크카드 2종, 웨어러블 4종, 기프트카드(10만원권) 6종이다.

이번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카드는 신용카드와 웨어러블은 14일부터, 체크카드는 25일부터 롯데카드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민영 기자

신한銀, 네이버 AI기반 금융서비스 확장

디지털 기반 신규사업 발굴 등
네이버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네이버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기존 지능형 고객상담센터 구축 등의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언어·음성·이미지 인식 및 처리 기술을 고도화해 AI 적용한 금융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기반 신규 사업 발굴도 협업기로 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네이버 이미지 인식 기술을 적용해 은행의 문서 처리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고, 안면 인식 등 신기술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와 서비스를 융합해 금융솔루션을 개발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양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채널 확장에도



14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전략적 제휴 협약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신중호 네이버 서치엔지니어링 CIC 대표 겸 라인 주식회사 공동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함께 나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능형 콜센터 서비스 구축과 문서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AI 기술을 접목해 향후 많은 영역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인공지능 챗봇 ‘솔메이트 오로라’를 통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여신 자동심사 모형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은행권 관계형금융 잔액 8.3조... 전년말비 9.5% ↑

장기대출이 대부분 차지
낮은금리로 부담 완화 효과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관계형금융 취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관계형금융 잔액은 8조288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5% 증가했다. 전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3.8%의 2.5배 수준이며, 장기대출이 8조266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계형금융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대출 72조1000억원 대비 관계형금융의 장기대출 비중은 1.14%다. 지난 2016년 0.68%에서 2017년 0.90%, 2018년 1.0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능력이 취약한 저신용 중소기업들도 관계형금융을 통해 장기대출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상반기 말 관계형금융 평균 대출금리는 3.67%로 전체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3.81%)보다 낮아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은행 그룹 가운데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공급규모(누적 공급금액, 업무협약 체결건수 등)와 공급유형(신용대출 비중 등) 모두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농협은행은 누적공급금액, 저신용자대출 비중 등에서 다소 미흡했지만 공급증가율, 초기기업 비중 등이 우수했다.

중소형 그룹 가운데서는 대구은행과 제주은행이 각각 우수은행 1, 2위로 선정됐다. /안상미 기자